

#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김수진\*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 조경학 전공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실

## I. 서론

21세기로 접어드는 현재의 시점에서 공동체 문화를 주목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주도해 온 근대성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반성, 세계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중요성 부각 등에서 연유한 바가 크며(홍성구, 2009), 더욱이 우리의 주거문화는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어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시적으로 언제나 누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전체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김세철, 2005).

그 대안으로 전통마을의 사회적 건전성과 문화적 지속성, 그리고 삶터로서의 교훈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신상섭, 2000), 마을이 가장 작은 단위의 모습살이로서 공동체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자급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치적, 문화적, 자족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자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임재해, 2008).

특히, 전통마을의 주거는 자연환경, 종교, 국민성, 그리고 시대상황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데(심우경, 1987),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어느 하나의 우연한 요소의 결과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개인적인 욕구의 결과라기보다 집단 전체의 목표와 욕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Rapport, 1985: 73-74).

전통마을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을 비롯한, 지리학, 인류학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건축이나 조경분야에서도 전통마을의 입지와 배치특성 등의 기본적인 양적 연구에서, 생태, 문화, 공간통사 등의 복합적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통공간의 공동체 요소라 할 수 있는 민속적 장치에 대한 미학적 또는 경관적인 접근(김한배, 1981; 이재근, 1981; 김동찬 외, 1999; 장동수, 2001, 김수진 외, 2007)은 다소 소외되

어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마을에서 공동체적 문화가 행해지던 공간의 문화경관적 해석을 통하여 전통마을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나아가 마을단위의 주거단지 계획 시 공동체적 공간을 설정, 활용하는 간접적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사례연구지의 선정기준으로는 역사, 문화, 예술적으로 전승가치가 있으며, 전통문화를 잘 보존, 전승하고 지역의 문화이미지를 잘 반영한 마을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선정된 마을인 중요민속자료, 사적, 역사문화마을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분포된 18개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강원·충청지역의 2개 마을, 영남지역의 10개 마을, 호남지역의 5개 마을, 제주의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지답사는 현장조사와 인터뷰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답사의 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4월에 이르기까지 반복 진행하였다. 현장조사에는 각 대상 마을에 현존하는 공동체 공간의 물리적 관찰과 마을의 의례행위에 대한 행위관찰을 통해 공동체 공간의 장소성을 고찰하였고, 개략적인 인터뷰 조사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실된 공동체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을주민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세밀한 인터뷰 조사를 위해 각 마을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각 마을의 이장, 부녀회 그리고 노인회 등의 촌로를 방문하여 공동체 공간의 위치와 마을내력, 제의 상황, 의례행위 등을 확인하였다.

## III. 결과

표 1. 전통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영역

대상	마을 내의 위치			기타
	마을 입구	마을 내부	마을 외곽	
왕곡	-	마을회관, 마을보존회, 마을마당, 방앗간, 빨래터	공동우물, 공동샐터, 지당	동학기념비, 교회
외암	마을마당, 물레방아, 반석정	새마을회관, 지당, 빨래터	농막(모정), 정자나무, 디딜방아, 연자방아, 마을보존관리사무소	열승정
괴시	마을마당	-	마을회관, 노인정, 왕버들 노거수, 우물, 빨래터, 공동우물	-
닭실	경로당, 농어촌여성사업소특장	공동우물, 빨래터, 마을마당	목욕터, 물레방아	유물전시관
해저	바래미샘, 빨래터	마을회관, 노인정, 공동마당	공동우물	-
황전	마을회관, 도암정, 빨래터, 지당, 마을마당	공동우물	샐터(용소)	-
양동	마을회관, 물레방아, 연자방아, 마을마당	공동우물	지당터	교회, 사찰, 학교
웃골	공동우물, 지당, 마을마당	-	공동빨래터, 목욕터, 과수원, 연자방아터	-
남사	-	마을회관, 예담원, 공동우물	빨래터, 물레방아, 정자목, 육각정자	-
한개	왕버들노거수	광대걸	공동우물, 샐터, 빨래터, 정자목, 마을마당	사찰
한밤	-	공동샐터, 빨래터	마을회관	교회, 사찰, 학교
하회	경로당 (하회마을보존회)	-	빨래터, 도선장	탈놀이 전시관
강골	동각, 하마석터, 지식묘	마을회관, 모정, 마을마당, 큰샘, 빨래터, 지당	공동우물, 샐터, 만휴정	-
낙안	-	관아시설 등, 허시, 관리사무소, 낙안읍성보존회	노거수, 언못, 대숲, 큰샘, 빨래터, 샐터, 물레방아, 연자방아	-
도래	노인정, 도천정, 우산각, 방죽	공동우물, 빨래터, 마을마당	샐터, 지당	-
방촌	-	마을회관, 마을마당, 노거수	삼괴정, 고인돌, 빨래터, 우물터, 옥샐터, 지당	방촌유물전시관
효동	두꺼비바위(고인돌)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마당, 시정, 공동우물, 연자방아터	평바탕, 사장등	-
성읍	-	관아시설 등, 노더리방죽, 원님물동, 별원방죽, 연자매	시거니못, 올리니못	-

표 2. 전통마을의 유교적 의례공간

대상	마을 내의 위치			기타
	마을 입구	마을 내부	마을 외곽	
왕곡	효자각	함씨종가, 효자각	-	-
외암	정려각	외암종가	외암묘소, 신도비, 외암정사(관선제)	-
괴시	목은 유허비	괴시파종택, 물소와 고택, 물소와 서당, 괴정	침수정, 스므나골 제사, 만서헌, 입천정, 무가정터, 목은기념관	-
닭실	삼계서원, 충계신도비, 열녀비	유곡종택, 청암정	송암정, 석천정사, 추원재	-
해저	팔오헌 신도비, 팔오헌종가	개암종가	학록서당, 단사장	-
황전	-	경암헌 고택, 추원재	봉산리사 서당, 봉산리사 제사	-
양동	정충비각	서백당, 무침당, 관가정, 향단, 경산서당, 창은정사, 설천정사, 두곡영당	-	-
웃골	-	백불고택, 보본당, 가묘, 별묘, 정려각, 동계정, 동천서당	복계정사, 대암	-
남사	삼백헌, 효자비	최씨고가, 분양고가, 사효재, 사양정사	니사재, 망추정, 내현재, 초포정사, 이동서당, 유허비	-
한개	정헌공 신도비	돈재 신도비, 한주종택, 한주정사, 북비고택	서륜재, 일관정, 침경재, 여동서당, 한천서당, 삼봉서당	-
한밤	효자비, 충의비	홍씨종가, 대청, 경의재, 동천정, 동산정, 동립재, 저존재, 애연당, 정일재, 추원당	활원정, 경회재, 수오정, 산남재, 구양정, 칠복재	-
하회	임향조기념비, 하마비	양진당, 충효당, 빈영정사, 원지정사	회천서당, 옥연정사, 겸암정사, 병사서원	-
강골	하마석	이금재 가옥(종택)	열화당	-
낙안	-	선정비각	성황사, 사직단, 여제단, 낙안향교	-
도래	양벽정, 영효정	석계종파 종가터, 봉교공파 종가터	계은정	-
방촌	효자비, 효열비, 각종 신도비	-	위성렬 가옥(종가), 장천재, 다산재	-
효동	효열비	-	서당터	-
성읍	-	정의향교, 각종 비각	포제단, 사직단, 성황단	-

표 3. 전통마을의 민속적 의례공간

대상 마을	마을 내의 위치			기타
	마을 입구	마을 내부	마을 외곽	
왕곡	당산목, 마을숲	-	기우제터	-
외암	장승, 솟대	당산목	산신당, 마을숲	-
괴시	큰동신	-	작은동신, 수구막이숲	-
닭실	장승, 납근석	솟대걸이	성황당	-
해저	솟대, 마을숲	-	진해사	-
황전	납기(마을숲), 동신, 성황당	도암	-	-
양동	아랫마을 은행나무	윗마을 은행나무, 버드나무, 당산	-	유교식 고사제
웃골	비보림, 회화나무, 당목	-	-	-
남사	당산, 당산목	은행나무 칠성계당	거북바위, 북바위, 용소바위, 말바위, 동숲	-
한개	-	-	-	-
한밤	성안숲, 진동단	-	기우제당	-
하회	서낭당	삼신당	성황당, 국사당, 민중정(마을숲)	-
강골	-	-	당산나무	-
낙안	동, 서, 남의 솟대와 집대, 석구	동내리 중당(임경업 장군비), 서내리 하당, 남내리 중당, 은행나무, 당산	동내리 상, 하당, 서내리 상당, 서내리 중당, 남내리 상당, 남내리 하당, 대숲	임경업장군추모제
도래	당산나무	-	마을숲	-
방촌	돌장승	입석	허재비골, 신기 동산계당, 기우제당	-
효동	뒤업나무, 당목과 수살(서), 마을숲	-	느티나무 당목과 수살(동), 팽나무 당목과 수살(남), 배롱나무 당목과 수살(북)	-
성읍	동, 서, 남의 돌하르방	느티나무 당목	안할망당, 광주부인당, 문호당, 일랫당, 개당, 쉼당, 팽나무 숲	유교식 포제당

#### IV. 결론

본 연구는 전통마을에서 공동체적 문화가 행해지던 공간의 문화경관적 해석을 통하여 전통마을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마을단위의 주거단지 계획 시 공동체적 공간을 설정, 활용하는 간접적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전통마을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배산임수나 장풍득수의 풍수사상을 원칙으로 터를 조성한 만큼 마을의 형국을 마을의 경계로 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을의 형국이 풍수적으로 안정된 형국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숲이나 비보림과 같은 심리적인 장치들로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장치물들은 마을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져 신성시하였다.

둘째, 전통마을의 공간은 도로나 하천, 지형, 지물의 요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마을의 경계를 형성하거나 영역을 규정하게 되는데, 도로가 교차하거나 특정의 지물이 있는 경우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 마을의 주요 공동체 공간이 되었다. 또 특정의 경계를 이루는 요소가 없더라도 마을주민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공간이 분할되거나 위계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의식적인 경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사회적 영역 중 집회, 휴식의 공간인 마을회관과 노인정은 비교적 근대 이후에 조성된 공동체 공간으로 그 위치에

선정에 있어서는 마을의 성씨별 구성형태나 마을의 형국과 관련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마을 입구에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체 공간이 위치한 경우 마을로 통하는 진입구가 하나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마을의 구성이 동성마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경우는 마을로 향하는 주동선이 2개 이상일 때 주로 나타나는데, 양성마을 이상의 성씨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거나 동성마을의 파손들에 의해 새로운 마을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동생활의 공간으로 우물, 샘터 등과 같은 공동체 공간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마을의 형국과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풍수 형국상 행주형이나, 연화부수형의 형국을 가진 마을의 경우 우물을 마을 내에 두는 것을 지양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을 외곽의 계곡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마을의 공간을 구획하는 등의 소규모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웃 간의 잦은 접촉을 유도해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넷째, 농작물을 도정하는 공간이나 농작물을 건조하는 마을 마당의 공간들은 마을의 소작들이나 하인들이 거처하는 공간 주위에 위치하여 마을주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는데, 서로간의 공동의 노동을 통한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마을마당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공동의 놀이가 주체되는 장소로 놀이와 휴식,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의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다섯째, 전통마을의 종가는 마을 내부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종가가 위치하고, 또 주산의 중심 혈자리에 위치하여 주산에서부터 종가, 그리고 마을 안산으로 이르는 상징적 위계의 축을 형성하여, 마을 종가가 가지는 위계는 상당히 높다. 또한, 마을 중심에 종가가 위치한 경우는 종가 자체가 풍수형국의 영향을 받아 마을의 중심적인 영역으로 상징되거나 또 마을의 중심적인 상징물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마을 내에서의 특징의 위계와 장소성을 형성하였다.

여섯째, 정려를 비롯한 신도비는 개인의 표창함과 동시에 문충을 상징하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건물로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마을을 오가는 지역유립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알리고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공간에 건립하였는데, 주로 마을입구나 언덕, 그리고 특징의 상징적인 가옥 앞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상징물은 유교적 의식이 강한 반가의 마을에서 의식적인 경계의 의미로도 이해되어 마을 주민들의 소속감과 귀속의식을 강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일곱째, 조선사회가 유교적 의식이 강한 만큼 전통마을의 공간에는 서당, 서원을 비롯한 교육공간과 재실건축이 마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을 벗 삼고자 하는 당시 유교적 이상향과 맥을 함께 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교적 공간들은 조상을 봉헌하는 재사의 기능과 휴식, 강학을 위해 건립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영역과 위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로도 이해되어졌다. 마을의 재실들에 서당의 기능이 복합된 것은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질서 부여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재실에서 교육함으로써 학동들에게 수시로 훌륭한 조상을 상기시키며 공부를 독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제와 문중의 회합 때에만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재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여덟째, 전통마을의 민속적 의례공간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서 과거에서부터 전승된 토착 신앙적 요소가 강한데, 민속적 의례공간들의 본질이 마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서로간의 암묵적인 질서를 만들어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주민서로간의 상호존중과 배려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암묵적인 질서는 마을 주민 서로간의 공동체 의식함양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통마을의 공동체 공간에 내재된 문화경관은 마을의 주체인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마을의 공동체 공간은 단지 개별적으로 독립된 계층에 의해 점유된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간의 사용유무에 따라 다의적인 장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였고, 남녀노소의 사용계층에 따라 특징의 공간이 점유되거나 분리되어 차별화되어 있지만 서로간의 암묵적인 소통과 이해로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었다.

## 인용문헌

1. 김동찬, 이윤수, 임상재(1999). 무속 공간모형에 의한 남사마을 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2): 95-107.
2. 김세철(2005). 숭대신앙의 커뮤니케이션적 특성과 의미. 언론과학연구 5(1): 92-113.
3. 김수진, 정해준, 심우경(2007). 전통마을 공동체적 공간의 의미해석 - 전남 영광군 효동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94-105.
4. 김수진(2010).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金漢培(1981). 文化景觀의 象徴性的 體系로 본 韓國傳統 마을의 景觀構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신상섭(2000).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1): 20-31.
7. 심우경(1987). 造景에서 生態學과 風水思想의 關聯性. 한국정원학회지, 1(6): 149-160.
8. 李載根(1981). 民間信仰이 韓國傳統마을의 造景要素에 미친 影響에 關한 研究 - 河回·良洞마을을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임재해(2001) 농촌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방향 구상과 실천과제. 한국민속학회지 33: 255-297.
10. 장동수(2001). 한밤마을 의례경관의 의미. 한국정원학회지 19(35):1-10.
11. 홍성구(2009).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아파트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1): 227-270.
12. Amos Rapoport. 이규복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